

4대강 주변 농촌마을, '명소, 명품' 으로 조성 4대강 물길 따라 흐르는 농촌의 희망, 금수강촌으로 거듭난다



이봉훈
농림수산식품부 4대강새만금과장
bhlee00@korea.kr

○ 서 언

지난 6월 8일,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지난해 12월 첫 발표된 이후 6개월 만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 2012년까지 2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써의 윤곽이 나타난 것으로 공사가 끝나면 홍수와 가뭄의 대비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강 주변의 환경과 경관이 좋아질 것을 기대된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맑은 물과 친수공간이 확보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농어촌 발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금수강촌(錦繡江村) 만들기' 사업을 확정하여 지난 6월 8일 국토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반영하여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의 '금수강촌 조성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펼쳐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새롭게 개선되는 강 주변의 농촌지역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여

농어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명소로 만들어 지역 대표브랜드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계획이다.

또, 생활여건개선과 더불어 농촌자원을 소득원으로 개발하는 융복합산업화 등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수강촌 조성사업은 4대강 대표이미지와 그 지역의 특산물, 역사·문화·자연 등 다양한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테마를 설정하고 테마를 중심으로 공공디자인과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적용하여 마을을 명소화·명품화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하나이다.

일례로 '러브레터 마을'의 경우 4대강 주변 마을에 E-mail, 문자메세지 등의 이용으로 폐기되는 우체통(2009년 1,083개)을 활용해 디자인하고 지역 특산물인 포도와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체험거리를 만들고,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와인산업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우체통, 편지, 연인, 포도 등의 지역의 이미지를 이야기(story)로 엮어 금수강촌을 생생한 이야기가 있는 명소를 만드는 과정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보다 새롭고 다양한 농촌의 모습을 찾는 도시민들의 방문으로 포도농업의 융복합산업화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신활력·향토산업·지역특화품목지원과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 등을 연계해 향토자원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산업화 기반을 구축해 마을의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을 농어촌 소득원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강촌 주변에 경관림 조성, 경관작물 재배 등을 통해 경관벨트를 형성하여 체험·휴양산업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강촌마을 재즈페스티벌, 사진·그림전시회 등 특색 있는 이벤트 개최 및 브랜드화도 제시했다. 금수강촌을 거점으로 인근 향토음식, 전통·문화자원, 재래시장 등을 연결하는 체험·휴양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전개를 펼친다는 복안이다.

나아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도시의 은퇴자 및 고령인이 농어촌에 머물면서 자족할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정비하여 청결하고 자연환경과 잘 꾸며진 농어촌 마을에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의 노령인구를 농어촌으로 유도하는 계획도 시도된다.

이와 함께 4대강 수량 확보 및 수질개선 등의 종합지원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 독을 높이고 향후 다목적 용수 공급원으로 확대하고, 영산강의 하굿둑 구조를 개선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며, 미래 새로운 농어촌모델 제시를 위해 금수강촌 조성사업을 벌이고, 주변 경관이 수려한 4대강 인근 저수지는 수변공간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명소화해하기로 했다. 또 상류유역 산림정비와 다목적 산림댐 설치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맑은 물 공급 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농업분야의 오염물질 유입량 저감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축산분뇨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수량이 풍부하고 여건이 맞는 저수지에는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수지, 양배수장 등 기존 농업기반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카페, 향토음식점 및 지역 문화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금수강촌 조성 및 지역 명소화에 기업 참여를 유도키 위해 마을개발 주체를 현행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민간업체를 포함토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초기단계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사업이 정착되면 지자체 주도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 농업용 저수지 독 높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은 이상기후 대비, 장래 예상되는 물 부족에 대한 적극적 대처, 홍수조절 능력 증대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 등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바로 '농업용 저수지 독 높임사업'으로 기존 저수시설을 보강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주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기존 농업용 저수지 96개소(2조 2,986억원)의 독을 높여 갈수기에 2억4000만톤의 맑은 물을 농촌지역을 거쳐 4대강에 추가 공급하여 4대강의 수량 확보 및 수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더불어 수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저수지를 대상으로 작은 수력발전시설을 설치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수지와 함께 양·배수장을 리모델링하여 카페, 기념품 판매점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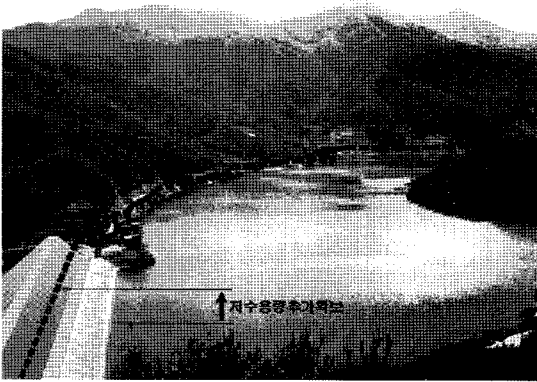


그림 1. 농업용 저수지 뚝 높임

지역 문화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도 함께 이루어진다.

□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지구 온난화 등 기상변화로 영산호 배수갑문 설치가 후('81) 홍수량 증가로 인한 홍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러한 홍수피해 방지와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을 위해 '09년부터 2012년 까지 4년간 약 6,18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영산강의 치수대책과 2급수 이상의 수질 개선을 위해 영산호 하굿둑 배수갑문에 대해 통선문을 포함 현재 240m인 것을 480m로 대폭 늘릴 계획이며, 영산호와 영암호간 연락수로 폭을 15m에서 140m로, 제수문 30m를 160m로 확장하고 영암호와 금호호간 제수문 30m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림 2.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또한, 영산호 수질개선을 위한 저층수 배제시설과 생태복원을 위한 어도 설치 등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재해예방 목적 이외 휴식, 조망, 관광 등이 가능한 다양한 친환경 관광·생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여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 금수강촌 만들기

농림수산식품부가 4대강 사업과 연계해 펼치는 사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금수강촌 조성사업이다. 금수강촌 조성사업은 기존 단위사업별 농촌개발방식을 지역 단위 농촌개발방식으로 통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삼천리 금수강산인 우리 국토를 되살리고 어려워진 우리 농촌을 금수강촌으로 만들기 위한 금수강촌 조성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이지만 농식품부는 저수지 독을 높이거나 농업용수를 끌어 쓰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활용해 후손에게 물려줄 농촌의 미래상을 만드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서 도출한 4대강 대표 이미지와 연계한 금수강촌 조성 구상도를 보면 한강의 이미지를 '생명'으로 설정하여, 현대적 감성이 조화를 이룬 맑은 자연마을을 조성하고, '역동'의 이미지를 갖는 낙동강 유역은 뽕, 누에, 비단을 테마로 한 웰빙·패션 마을로 특화된다. '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금강은 도농교류, 체험농업을 중심으로 특화하면서 폐기되는 우체통을 활용해 '더브레터마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관광단지도 조성된다. '풍요'를 상징하는 영산강 유역은 감척되는 배(ship)와 지역 특산물인 먹는 배(pear)를 결합한 마을이 개발된다.

4대강은 유역 10km 안에 69개 시·군(북한강 및 섬진강 포함)을 갖고 있으며, 이는 전체 시·군(168개)의 41.1%, 농어촌 시·군(138개)의 50.0%에 이른다. 4대강 이미지와 그 지역의 특산물과 역사·문화·자연 등 다양한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테마를 설정하고 설정된 테마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이야기로 엮어 지역명소로 개발하는 금수강촌 조성사업은 네덜란드의 쿠켄호프와 같은 마을이 벤치마킹 대상이다.

쿠켄호프는 32ha의 농지에 2,000여종의 꽃이 자라고 있는 일종의 공원마을이다. 물론 단순히 선진국의 모형을 따라가는 식이 아니라 '한국적 금수강촌'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농식품부는 우리만의 4대강 컨셉과 농어촌 자원 등을 연계하여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지역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을 랜드마크화 하겠다는 포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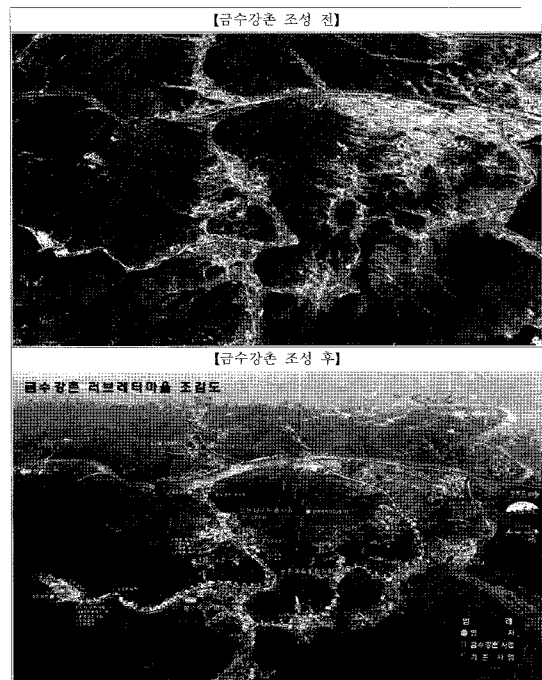


그림 3. 금수강촌 만들기 개념도(예시)

금수강촌의 미래 농어촌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 위해 기존의 지역개발과는 다른 개념들이 적용된다. 해당 지역의 테마를 발굴하고 테마와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들을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도입하여 생생한 이야기로 엮어 방문객에게 전달한다. 또한 통합적인 공간개발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개념도 도입하여 보다 아름답고 편리하게 디자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개선하고자 한다.

□ 저수지 수변개발

농식품부는 그 동안 단순히 이수 및 치수 대상으로만 보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던 저수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수지 이용주체인 지역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저수지 수변공간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여가·문화활동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저수지 주변의 자연경관 및 어메니티(종합적인 삶의 쾌적함) 자원을 유지하고 보전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저수지 수변지역의 우수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다면 도농간 교류를 통해 지역의 명소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저수지 수변공간을 개발하여 테마체험시설(자전거도로, 승마체험장, 어도관광), 위락시설(수변테크), 향토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고 새로 조성되는 금수강촌 및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을 명소화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된다.

□ 상류유역 산림정비 및 다목적 산림댐 조성

이러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 여부는 상류 유역 산림 관리에 달려 있다. 4대강 상류유역 산림정비를 통하여 상류유역 산림에서 유출되는 토석 및 나무 등을 근본적으로 감소시켜 4대강의 배수기능, 수질오염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 향상을 통한 수자원 저장량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사업을 산림유역 단위로 산지보전사업, 숲가꾸기, 경관립 조성사업, 계류보전사업 등을 통합 추진하여 산지의 토양 보전 및 녹색댐 기능을 증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산림댐 규모를 확대하고 물 저장 기능을 강화한 다목적 산림댐을 조성함으로써 매년 337천m³의 토석 유출을 저감하고 갈수기 농산촌 지역에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함은 물론 산발 진화용 헬기 취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새로 조성되는 다목적 산림댐 주변지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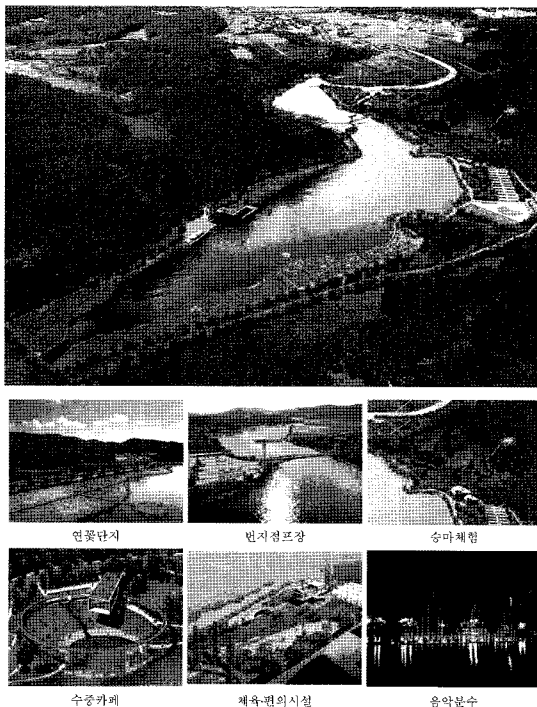


그림 4. 저수지 수변개발 개념도

지리·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테마가 있는 다양한 여가·휴양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도시민의 여가활동장소로 제공된다.

이와 같은 농식품부의 금수강촌 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의 농어촌은 희망의 땅, 기회의 땅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며, “누구나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농어촌”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금의 농어촌

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금수강촌으로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떳떳하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농식품부는 지역 주도·지역주민 중심의 ‘금수강촌 만들기 운동(Movement)’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이 제2의 새마을운동, 범국민 운동(Movement)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림 5. 상류유역 산림정비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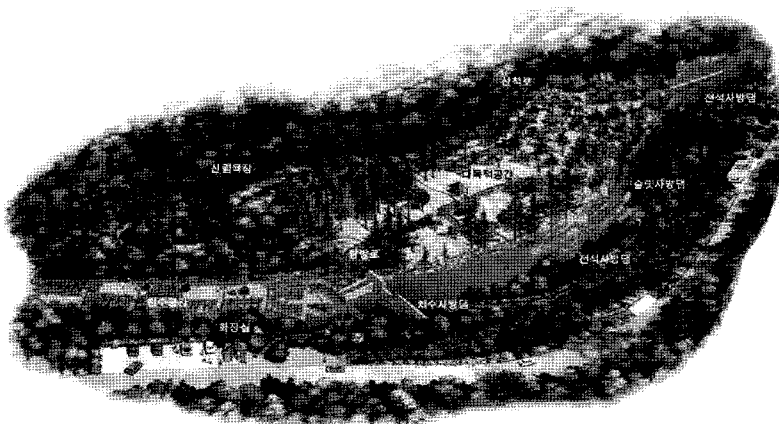


그림 6. 다목적 산림댐 조성 개념도